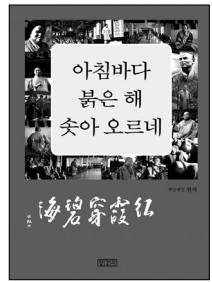


# “일거수 일투족 生生 법문”... 성철 스님 핵심 사상 논집 정리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오르네

책임편집 원택스님 | 정경각 펴냄 | 1만 3천원



성철 스님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논집 <백일법문> <선문정로> <본지풍광> 등을 쉽게 풀어 낸 책이 발간됐다. 제목은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오르네>이다.

이 책에서는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재영 박사가 <백일법문>을, 부산 동덕대 중문과 강경구 교수가 <선문정로>를, 가신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옥 박사가 <본지풍광>을 쉽고 명쾌한 글로 각각 해설했다.

이외에도 뉴욕 스토니부룩대 박성배 교수의 ‘돈오돈수설의 종교성에 대하여’와 중앙승가대 도서관장이자 서울 삼삼사 주지인 원소 스님(성철 스님 상좌)의 ‘결에서 본 성철 스님’ 원고도 함께 수록됐다. 위 세 책은 성철 스님의 핵심저작으로 꼽힌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후 그 해 동안겨에 100 일 동안 불교의 핵심을 설한 것을 묶었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을 통해 불교의 핵심은 중도(中道)에 있음을 강조했다.

<선문정로>(1981년 발간)와 <본지풍광>(1982년 발간)은 참선 수행의 방법과 근본 원리를 다양한 경전과 어록을 인용해 제시한 책이다. 성철 스님 스스로 “부처님께 배움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저서들이다. 특히 성철 스님은 위 책들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를 본격적으로 명확히 주창했다.

서재영 박사는 <백일법문>에 대해 말한다. “1960년대 한국불교계는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격동의 나날이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어둠 속에서 포효처럼 울려 퍼진 사자후였다”며 “주제는 불교의 핵심적 사상, 돈오돈수와 같은 수증론 등 심원한 불교사상과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제들이 실천이 결여된 채 문헌적 탐구를 통해 기술된 것이라면 종교적 의미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일법문>은 평생 수행으로 일관한 투철한 수행자가 펼친 법문이라는 점에서 내면적 검증은 거친 저서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서 박사는 “<백일법문>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 불교의 본래성을 회복하자는 성철 스님의 투철한 가치관이 배어 있는 저서다. 여기에 흐르는 주제의식은 도도하리만치 불교의 본질적

주제에 철저하다. 이는 근대 이후 발간된 불교권의 저작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자 가치이다”고 덧붙혔다.

강경구 교수도 <선문정로>에 대해 밝혔다. “<선문정로>는 참선수행의 지침이자 깨달음의 자기 점검기준으로 제시된 수행자의 길잡이 책이다. 그 핵심은 경성(見性), 돈오(頓悟), 무심(無心) 등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이르는 첩경으로 공안참구의

**<백일법문><선문정로><본지풍광> 설명 서재영 강경구 김영옥 박성배 교수 등 학자들 쉽고 명쾌한 글로 법문 해설 상좌 원소 스님 '결에서 본 스님' 수록**

길이 제시된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여기에 ‘완전함’이라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즉 철저한 경성, 완전한 돈오, 궁극적 무심이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므로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참선수행의 과정에 얻게 되는 기특한 견해나 기이한 체험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는 당시의 수행풍토에 대한 소박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보조선의 돈오점수 사상을 지해중도의 견해로 규정하는 비판

으로 절정에 달한다.”며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의 수행 및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책이라 평가된다. 이 책의 인용문은 전부 성철 스님의 발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문에 개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의 생략과 추가에 자유롭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문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용문에 개입하여 자기화하는 일은 중국의 전통적 글쓰기나 선사들의 설법에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성과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한 문장이라 해도 결국은 성철 스님의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옥 박사도 <본지풍광> ‘화두와 현재적 의미’에서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했다.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스님의 저술 가운데 선사로서의 진면목을 이처럼 철저하게 담은 책은 없다. 동시에 그 진면목을 깊이 숨기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책은 해독하기 쉽지 않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됐다. 더구나 <본지풍광>은 다른 저술들에 가려져 늘 뒷전에 밀려나 있었지만 이

책에 성철선의 핵심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을 제외하고 스님에 대해 아무리 비난해도 허공에 샅대 질하는 격이고, 반면에 어떤 찬사로써 추어 올리더라도 이 책의 진면목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 또한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방식의 칭찬과 비난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맹목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박성배 교수와 원소 스님 역시 성철 스님을 만난 인연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박성배 교수는 “돈오돈수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깨치고 갑자기 닦는다’로 번역하는데, 말도 안된다. ‘점차 깨닫고 점차 닦는다’는 점오점수(漸悟漸修)라는 한 자어에 근거해 억지로 만든 말이다. 점오점수든 돈오점수든 점수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 돈오돈수를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점수와 사람들은 점수와 돈수의 말의 족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점수(漸修)는 연장적인 시간개념이 중심이 된 말이지만, 돈수(頓修)는 시간개념이 아니다. 꿈의 세계서 깬 세계로 넘어올 때 시간의 길고 짧은은 문제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날 때 잠 깨어나듯 갑자기 깨어나는가? 점의 세계는 시간의 장단이 문제되지만 돈의 세계는 시간의 장단이 문

제되지 않는다. 아니, 시간개념을 버려야 ‘몰록(頓)’이란 말의 참뜻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을 시봉한 상좌 원소 스님도 이 책에서 스승에 대한 가르침과 추억을 밝혔다.

“성철 스님이 개인의 하루 일상생활부터 산중의 어른으로서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이 산 것은 그 당시 해인사에 살던 사부대중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바다. 그는 수행자의 위의를 잃지 않고 평생을 통해 치열히 살았기 때문에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은 바로 살아 있는 법문이었다”며 “성철 스님은 사부대중의 지도자로서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서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셨다. 공부를 마친 도인으로서 자기만의 정신세계에만 안주한 것이 아니라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춰 지도하셨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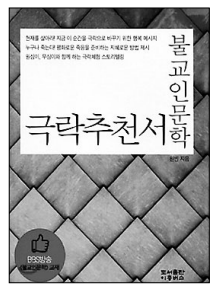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오르네> 출간과 관련해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스님의 고회 참회집을 내어 놓게 되었다”며 “박학한 학자님들의 붓끝을 빌어 큰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쉽게 풀어 놓았으니, 진리를 깨쳐 성불하고자 하는 불제자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훌륭한 햇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불교와 인문학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극락추천서

원빈 스님 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2천원



이 책은 4월부터 방영된 BBS 불교방송 ‘원빈스님의 불교인문학:최고의 행복학, 불교’ 코너서 사용하는 교재다. 불교의 극락에 대한 정보를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인문학 자료인 도서나 영화, 사회현상과 대중문화 등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한다. 극락에 대한 경전들은 부처님과 여러 고승들이 마음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선정력으로 기록돼 자체 검열을 2000년 이상 견뎌온 높은 신뢰성을 가진 보물이다. 본문에서는 불교와 불교인문학의 개념, 믿음, 죽음, 삶, 영기의 기본개념부터 설명하고 극락에 대해 세친보살의 ‘왕생계’를 중심으로 극락의 기원, 구성요소의 성품, 극락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극락을 가기 위한 수행 등으로 전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의 원리와 내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극락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돼 자연스럽게 극락에 대한 건강한 확신과 신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무심이 이야기’는 극락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됐으며, 주인공 무심이와 함께 극락체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목적은 뚜렷하다. 독자들이 극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

**‘BBS 원빈 스님의 불교인문학’ 교재 ‘왕생계’ 중심으로 극락 기원 등 소개**

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를 소개하고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과 뛰어난 즐거움, 극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해 자연스럽게 극락에 대한 건강한 확신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유도할 것이다.

저자는 “극락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극락이 좋아지고, 극락왕생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난이도는 난해한 교리의 설명은 피하고 핵심만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조절했다”며 “인문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나 영화, 사회현상과 대중문화 등의 인문 자료를 예화로 들어 일반 대중의 관심사에 걸맞은 방식으로 극락을 소개했다. 이렇게 극락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승수함에 반해 어느새 ‘나무 아미타불’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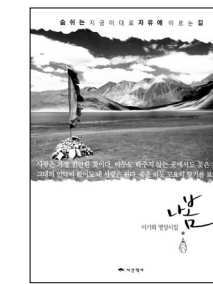
▲저자 원빈 스님은?

해인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육군 군종 장교로 임명됐다. 전역 후에 템플스테이, 강연, 법회, 스터디 등을 통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한다. 저서로는 <같은 하루 다른 행복>과 자기계발서 <명상선물>이 있다. 꾸준히 포교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 2회 전법학술상서 대상인 바라밀상을 수상했다. 현재 행복문화연구소 소장이자 행복명상 지도법사이다.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재학중이며 동대학의 강사진을 맡고 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행복한 2사>를 진행했고, 현재 BBS 불교방송 TV <불교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의 마음에도 점점산중 오지가 있다”

나눔

이기와 저음 | 사산책사 펴냄 | 1만원



의 상차마다 오래된 비밀이 쌓여 있는 곳, 허니버람 부는 날 그대가 찾아올까 산빛꽃 후드득 뿔고 있는 곳, 평생을 울린 그대를 달빛 품에 안아 환히 씻겨 줄 그곳, 그대의 마음안에 까마득히 버려진 그대가 있다”

이기와 시인은 2002년 처녀시집 <바람난 세상과의 블루스>로 베스트 작가에 오른 이래 그녀가 발간한 책들마다 화제에 올라 언론계와 평론가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2006년 ‘인간의 본성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그린 <비구니 산사 가는 길>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이번 <나눔> 명

상시집. 이 책은 제목서 말해 주듯 과도한 인간의 욕망을 뒤로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깊고 단단한 침묵을 통한 성찰과 그 속에서 깨달은 면면을 조심스럽게 시어로 풀어낸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며,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삶이 무엇인지 풀면 막막해져 현재 나의 삶에 저마다 유서를 써 놓고 싶을 것 같다.

**침묵을 통한 성찰 명상 시어로 표현 라다크, 히말라야 사진 독서 미각 돋워**

읽어가다 어느 한 문장 속에서 홀연히 왜곡된 의식의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한쪽 눈으로 바라보던 편견과 견해로부터 벗어나 보다 총체적이고 다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시적 안목의 지평이 열리기도 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놓칠 수 없는 잠언적 시구 속에서는 묵은 관념의 때를 벗길 수 있는 해법

을 슬며시 엿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왼쪽면에 배치된 시월스런 사진들은 독서의 미각을 돋워주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모두 이기와 시인이 명상 여행을 떠난 인도 라다크와 히말라야서 가슴 깊이 담아 온 경외의 흔적들이다. 이 사진들을 보고 싶노라면 인간의 말이 멈추고 생각 이전, 그 무엇에 가 닿은 듯한 절대요의 느낌이 든다. 짙막한 잠언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을 단박에 읽을 수 없는 이유다. 사진 한 장에도 상념에 잠들게 만들어 책장을 쉽사리 넘기기 어렵다. 명상시집이란 책의 부제에 걸맞게 사진과 글을 통해 한없이 명상하게 만든다. 이 책이 가진 마력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기와 시인은?

199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바람난 세상과의 블루스> <그녀들 비탈에 서다>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비구니 산사 가는 길>이 있다. 인도 남갈사원서 탈라이라마 티칭 및 따시중 마을 캠퍼스원, 미얀마 파옥명상센터 및 담마마 미까국제선원, 한국 후두마을 등서 수행함. 현재는 강원도 화천서 <나눔>명상예술학교를 운영중이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살은 고통이 아니다

10,000원 A5/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 살은 고통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